

R&L바이오, 줄기세포 증식기술 개발

태반 유래 양막상피세포 대량 증식 ... 질병치료에 다양하게 이용 가능

성체줄기세포 연구기업인 R&L바이오(대표 라정찬)가 양막줄기세포의 대량 증식기술을 개발해 주목된다.

R&L바이오 중앙연구소 강성근 박사팀은 배아줄기세포에 버금가는 분화 능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태반 유래 양막상피세포를 대량으로 증식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3월8일 발표했다.

양막줄기세포 증식기술은 한국생물발생학회가 발행하는 학술지 발생과 생식 최근호에 실렸다.

양막상피세포는 출산 후 폐기되는 양막에 들어 있는 조직으로 산모와 태아에게 미치는 영향이 없고, 회수가 쉬워 새로운 성체줄기세포 공급원으로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에는 양막 줄기세포의 효능이 증명되면서 국내외에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강성근 박사는 “태아를 둘러싸고 있는 양막상피세포는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수준으로의 증식, 배양이 어려워 임상적용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하지만 세포를 안정적으로 증식·배양하는 방법을 정립함으로써 양막줄기세포를 질병치료에 폭넓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3/08>